

안철수·천정배 통합 “뉴DJ들 공천”

‘국민의당’ 내달 2일 창당
 호남정치 대통령 청신호
 원내교섭단체 구성 탄력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과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회의가 25일 통합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야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천정배 통합 정당’인 국민의당으로 양분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양 측의 주도권 경쟁은 한 층 격화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4면>

안 의원과 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통합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 측은 일단 각자 독자창당에 나서기로 했던 일정을 변경, 두 세력이 합쳐진 통합신당으로 창당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 통합이 이뤄짐에 따라 난항을 겪었던 국민의당 원내교섭단체 구성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당명은 ‘국민의당’을 쓰기로 했으며, 중앙당 창당일은 국민의당 창당 예정일이었던 다음달 2일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합의문에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총선 압승 저지’를 통합 취지로 적시한 뒤 “이번 통합의 결과가 국민의 변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여야 하며, 국민을 위한 통합이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혁적 가치와 비전을 지닌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들을 총선 후보로 공천하기 위해 규칙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이번 통합 작업은 김한길 의원 주도로 물밑에서 진행됐으며, 안 의원과 천 의원, 김 의원이 24일 심야 3차 회동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천 의원과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따로 만나 합의문을 작성했으며, 곧이어 안 의원과 천 의원이 기자회견 직전 다시 회동을 하고 최종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이날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가 아닌 국민의당을 선택한 배경



“잘 해봅시다” 국민의당(가칭) 창당을 추진하는 안철수 의원과 국민회의의 천정배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당 기자회견을 하고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 대해 “더민주에서 패권주의 해체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혁적 가치와 비전을 가진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인 ‘뉴 DJ’ 들을 공천하기 위한 여러

‘폭설 광주’ 제설작업 왜 안됐나 ▶6면

한파 대비 자동차 관리 요령 ▶15면

광주의 미래 자동차산업밸리 ③ ▶18면

가지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남 지역 공천에 관련, 천 의원은 “새로운 분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로 상호간에 의견이 합치됐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이 “합리적 중도개혁 인사들의 참여 및 신당 추진 인사들과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여러 말씀을 나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합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민의당에서는 박주선 의원의

통합신당, 박준영-김민석의 민주당, 정동영 전 의원, 더민주 탈당 이후 제3지대에 머물고 있는 박지원 의원과 권노갑 전 고문 등 동고동계 측과도 통합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미 천 의원과 박주선 의원, 정동영 전 의원이 사실상 ‘3자 연대’에 합의했고, 박지원 의원과 권노갑 전 고문, 박준영 전 지사와 김민석 전 의원에 통합에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신당 세력 통합을 통한 야권 재편은 급류를 탈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보육대란’ 끝내 터졌다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 끊겨 교사들 월급 못받아
 광주시교육청 예산 598억 편성...시의회 처리 관심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비가 끊기면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교사들의 월급날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보육대란’ 사태가 현실화됐다.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에 유치원들의 운영난, 유치원 교사들의 생활고까지 맞물리면서 ‘보육대란’ 사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상황에서 애초 시의회 심의에서 삭감했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원을 편성에 제출키로 해 시의회가 어떤 의견을 내놓을 지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과 유치원 교사 500여명은 25일 오후 광주시의회 앞에서 ‘유치원 교사 급여 시의원이 책임져라’는 팻말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전에는 광주시교육청을 찾아 침묵 시위를 벌였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지역 180개 사립유치원(교사1430명) 중 80% 이상이 월급날인 25일 교사 급여를 챙겨주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치원들은 급식비·운영비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사 급여 뿐 아니라 조리사·통학버스 기사 등의 임금도 미루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와 조리사, 통학버스 운전자 등은 빼듯한 월급으로 매월 공과금, 카드값 등을 지출하고 있어 급여 체불은 당장 생계에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같은 점을 감안, 시의회가 전에 삭감했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원(보육료 12개월치+저소득층 방과후과정비)을 다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장휘구 광주시교육감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유치원은 교육청이 감당해야 하는 만큼 추경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은 장 교육감에게 ‘2개월치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 118억원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그러나 시의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각각 3개월치 분할 편성하는 방안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개월치 누리예산은 유치원이 177억원, 어린이집이 168억원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논란 없는 구간 우선 착공”

윤 시장 “임기 내 시작” 밝혀

그동안 건설공법을 놓고 논란을 빚어온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윤장현 시장 임기 내 착공될 전망이다. 그러나 광주시의회가 저심도 방식의 원안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민단체는 건설 여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해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된다.

<관련기사 2면>
 윤장현 시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설 여부부터 건설 공법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2호선을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임기 내 착공을 위해 건설공법에서 논란이 없는 필수 지하 구간 등을 먼저 착공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윤 시장은 설명했다.

그는 “(재정추가 소요) 예비타당성 재조사 상황으로 가는 것은 행정으로써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저심도 방식을 배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저심도 방식은 시의회가 좋지



차게 주장해 온 방식이어서 의회의 반발 등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존 저심도 방식을

반대하며 건설 여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공식 촉구했다.

도시철도 2호선 대응 시민사회 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최근 3차례 회의에서 도출된 47지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연석회의는 핵심 쟁점인 건설방식과 관련, 저심도 방식의 원안은 편리성과 경제성이 없다고 반대했다. 또한, 임기 내 착공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대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놓고 서로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시민단체 간 갈등과 대립이 우려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LEXUS HYBRID ZERO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All New ES 300h

All New ES 300h

당신은 감동하고 세상은 주목한다

차를 향해 걸어가는 순간부터 시작된 감동은 차에 오르는 순간과 드라이브의 순간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완벽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조차 럭셔리하게 바뀌게 될 렉서스 All New ES 300h. 당신은 감동하고 세상은 주목할 단 하나의 하이브리드입니다

LEXUS AMAZING IN MOTION

광주 전시장: 080-384-7733(광주 서구 상무대로 881) | 전주 전시장: 080-263-7743(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21) | www.hyosunglexus.com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ES 300h(4기통 2,494cc, 공차중량 1,685kg, E-CVT 변속기), 복합연비: 16.4km/ℓ(도시연비: 16.1km/ℓ, 고속도로연비: 16.7km/ℓ), 복합CO₂ 배출량: 103g/km, 등급: 1등급 *이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